논어 9편 자한 27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衣敝縕袍，與衣狐貉者立，而不恥者，其由也與！『不忮不求，何用不臧？』子路終身誦之。子曰：「是道也，何足以臧？」

독음 · 자왈 의폐온포 여의호학자립 이불치자 기유야여 불기불구 하용부장 자로종신송지 자왈 시도야 하족이장

쉬운 풀이(요약) · 자로는 해진 옷을 입고 부유한 사람 곁에 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.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衣 옷 의 의 / 敝 옷 해질 폐 폐

縕 모시 온 온 / 袍 도포 포 포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狐 여우 호 호

貉 담비 학 / 者 놈 자 / 立 설 립 립 / 而 말이을 이

不 아닐 불 / 恥 부끄럼 치 치 / 其 그 기 / 由 말미암을 유 유

也 어조사 야 / 忮 해칠 기 기 / 求 찾을 구 구 / 何 어찌 하 하

用 쓸 용 용 / 臧 착할 장 장 / 路 길 로 로 / 終 끝낼 종 종

身 몸 신 신 / 誦 풍유할 송 송 / 之 갈 지 / 是 이 시 시

道 길 도 도 / 足 발 족 족 / 以 써 이 이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